



## 제8회 세계인쇄회의 남아공서 열려

제8회 세계인쇄회의(8th World Print Conference)가 지난 1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세계 인쇄시장 이익실현의 오늘과 내일(The World of Print Profiting Today & Tomorrow)”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개막식에서 집중 부각된 주요주제는 유비쿼터스 전자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맞아 이룩해야 할 인쇄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였다. 또한 당면한 특별 주제로 변화의 국면에 들어선 신문(미디어)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들도 심도있게 진행됐다.

크리스 사이케스(Chris Sykes) 세계인쇄회의(World Print and Communication Forum)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모여든 인쇄미디어 산업 및 관련 산업 관계자들이 향후에도 지속된 성장을 확실히 이루기 위해 여기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됨을 환영한다”고 밝힌 후 “또한 시장주요자로서 인쇄업과 관련한 우리 모두는 인쇄업관계자들이 지구상에서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시지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참가국 호응 높아  
WPC8에서는 중국 정부와 중국 프린

팅커뮤니티를 통해 100명 이상의 인쇄인을 파견한 중국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중국 대표였던 유용잔 언론출판부 차관은 최근 중국의 인상적인 사업실적의 몇몇 비밀들을 공개했다. WTO가입 결정이 중국의 수출거래를 매년 30~40%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증대된 교역의 효과는 인쇄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현재 인쇄산업이 중국 GDP의 2%, 미화 2600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매년 약 15%의 성장세를 구가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성장과 직접적인 기술 진보는 다가오는 2008년의 북경올림픽과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대표인 히로미치 후지타 닷판프린팅컴퍼니 회장이자 일본연방프린팅산업 대표의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개막연설을 통해 지난 10년은 인쇄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음을 전제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임에 따라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인 기획력과 마케팅 솔루션을 핵심능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세계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이 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아직도 많은 기회

# 세계 인쇄 시장

가 있음을 빼놓지 않았다. 여기서 인쇄산업의 기술혁신은 물론이고 교육, 공동연구, 비용절감 등이 주요 과제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인쇄산업과 관련해 5만 종류의 컬렉션들이 전시된 프린트 박물관을 2000년에 개장함으로써 미디어의 사회·문화적인 공헌에 대해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 연구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환경, 시각효과, 전자매체 활용, 디지털화 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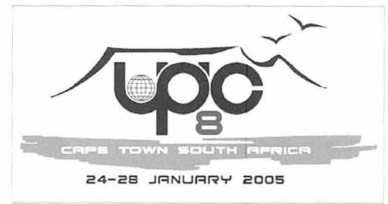
인쇄산업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위협도 극복해야 할 주제로 논의됐다. 7년 동안 국제인쇄출판연합(Federal of International Print Publications : FIPP, www.fipp.com) 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유명인사 대상 잡지인 헬로우(HELLO!)의 출판 이사인 샬리 카트 라이트(Sally Cartwright)는 WPC8에서 “만약 종이 출판이 환경친화적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면 모두 파멸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WPC8에서는 인쇄산업이 고려해야 할 가장 큰 압력의 하나로 ‘aliterate(글에서 정보를 얻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통칭)’가 하나의 조류로 형성되고 있음이 지목됐다. 이는 정보를 얻기 위해 더 이상 인쇄매체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출판 산업에서 illiteracy(문맹)가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만큼 심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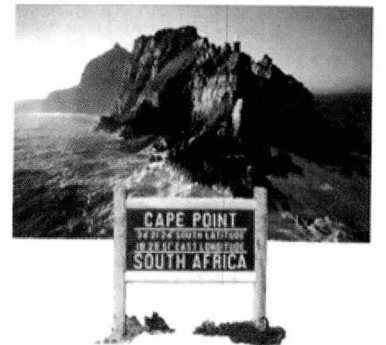
즉, 전자 미디어 혹은 라디오, TV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문자정보를 대체하는 방법이 증대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방안으로는 인쇄산업이 더욱 의미 있는 메시지, 더욱 두드러지고 이목을 끄는 그래픽이미지, 더욱 주의 깊게 선택된 단어를 사용할 것을 들고 있다. 결국 그래픽 및 영상산업의 발전에 따라 인쇄미디어도 이에 상응하는 디자인, 편집 등의 발전이 이뤄져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기획 편집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신문 잡지 등 미디어 시장의 전자 매체와의 연결, 인쇄산업에서 디지털워크플로우의 활용을 필두로 하는 디지털화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루졌다.

### WPC9 2007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세계 인쇄회의는 지난 1월28일 막을 내렸다. 그러나 WPC8에서 제기된 이슈들과 아이디어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쇄(미디어)업체와 공급업체들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 경영자, 마케터, 출판업체들에게 여전히 화두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의 가치는 이제 더 이상 문자로 된 종이인쇄물을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쇄물의 내용을 보다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눈길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 물론 비용절감과 부가가치의 창출



www.wpc8.com



크리스 사이케스(Chris Sykes) 세계인쇄회의 회장

도 필요하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창출을 통해서만 돈을 지불하려 들기 때문이다. 한편, WPC9는 2007년 10월21일부터 26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갑준 차장〉

# 오늘과 내일은?